곤륜(昆侖) 최창대(崔昌大)의 시세계에 관한 일고찰

—북관(北關)을 형상화 한 시작(詩作)을 중심으로—

이승용(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목 차 〉

1. 서론
2. 새로운 창작 공간 - '북관(北關)'
3. 북관(北關) 풍정(風情)의 시적 형상화와 그 특징
   3.1. 낯선 변새 풍광의 포착과 생경한 경험의 표출
   3.2 지역색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사실적 묘사
4.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곤륜(昆侖) 최창대(崔昌大, 1669~1720)가 북평사(北評事) 시절 '북관(北關)'을 유람하며 창작한 한시(漢詩)에 대한 연구이다. 곤륜은 당대에 시와 문장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당색(黨色)을 달리했던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도 "시(詩)는 오묘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 어려운데 근세에 오직 최아무개만이 오묘한 이치를 깨달았다."라고 칭송해 마지않았다. 선행연구에서 곤륜 시문학의 전반에 대한 내용적 탐색이 이루어졌으나, 곤륜의 한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할 여지가 많다. 이 글에서는 평범한 일상의 공간을 넘어 곤륜에게 기이한 볼거리와 함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새로운 창작 공간인 '북관'에 주목하여 곤륜이 북평사 시절 창작했던 한시를 고찰하였다. 곤륜의 생애로 볼 때, 이 시기는 자신이 문학적 역량을 마음껏 펼쳤던 시기이기도 하다.

www.kci.go.kr

먼저 이 글에서는 ‘북관’이라는 새로운 창작 공간과 곤륜이 북평사로 부임하며 경유했던 경유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어 시세계에서는 ‘낯선 변새 풍광의 포착과 생경한 경험의 표출’과 ‘지역색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사실적 묘사’라는 제목 아래 곤륜이 북방의 새로운 창작공간에서 마주한 정경을 어떠한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이 시기 작품에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양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시기 작품에는 자신이 목도한 변새의 낯선 지형과 그 감회를 형상화한 작품의 비중이 많았으며, 형식상으로는 율시(律詩)와 함께 고시(古詩)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변새에 대한 자신의 호기심과 느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곤륜의 창작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자신이 목도한 풍광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들이 돋보이는데, 그 중 대표적인 작품이 「경성관대조(鏡城觀大操)」이다. 「경성관대조」는 장편 고시로, 북평사로 부임했을 때 경성에서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목도하고 이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인데, 생동감 있는 묘사와 비유법이 특징적이다. 조선후기 어느 작가도 북방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한시에 담아낸 예가 없으며, 더구나 장편 고시를 활용한 경우는 없을 만큼 「경성관대조」는 특이한 작품이다. 북평사 시절에 창작했던 곤륜의 한시가 곤륜 시세계의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이 시기에 창작한 곤륜의 한시를 통해 그가 한시 창작에 있어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추구했던 개성적인 작가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핵심어 : 곤륜(昆侖), 최창대(崔昌大), 소론(少論), 북관(北關), 한시(漢詩).

1. 서론

최창대(崔昌大)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효백(孝伯), 호는 곤륜(昆侖)이다. 증조부는 영의정을 역임한 최명길(崔鳴吉)이며, 부친은 영의정을 역임한

www.kci.go.kr

최석정(崔錫鼎)이다. 그의 가계(家系)는 대대로 소론(少論) 집안이었다. 곤륜은 문장에 뛰어나 박세채(朴世采)와 김창협(金昌協)에 비교되었고, 제자백가와 경서에 밝아 당시 사림의 추앙을 받았다.[1] 서당(西堂) 이덕수(李德壽)에 의하면 곤륜은 당세에 이미 문장가로 명성이 높았으며, 특히 농암 김창협은 "詩는 오묘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 어려운데 근세에 오직 최 아무개만이 오묘한 이치를 깨달았다."라고 하였으며, 그의 아우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은 "최 아무개의 글 가운데 「홍유인애사(洪有人哀辭)」와 같은 것은 한유(韓愈)의 「구양생애사(歐陽生哀辭)」 이후에 비로소 볼 수 있는 작품이다."라고 하였다고 한다.[2]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당시 그의 文名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곤륜의 시문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곤륜의 문학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수사론에 대한 연구[3]와 한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4], 기행시에 대한 연구[5], 누정시에 관한 연구[6] 및 문장론에 관한 연구[7]가 있었다. 이 가운데 성범중의 연구에서는 연보를 중심으로 곤륜의 생애와 한시의 전반을 다루어 향후 곤륜 문학 연구의 기틀

1) 『숙종실록보궐정오』 65권, 숙종 46년 4월 22일, 「전 홍문관 부제학 최창대의 졸기」. "昌大雖官位未尊, 而世道之責, 倚爲輕重焉. … (中略) … 昌大早以文章名, 體裁均停, 辭理俱到, 可與朴世堂金昌協數人竝駕云."

2) 李德壽, 『西堂私載』 권10, 「弘文館副提學崔公墓誌銘 幷序」. "論者謂公文, 骨理明愜, 辭氣精鍊, 華藻外被, 韻折傍叶, 若其風雅一致, 理事兼該, 尤非近世詞翰家所能及云. 余於昔年, 嘗聞金農巖昌協之言以爲'詩難於妙悟, 而近世惟崔某能悟妙理.' 及其弟三淵昌翕, 則又言崔某文, 如洪有人哀辭, 歐陽生哀辭, 後始見者, 具眼之獎許如此."

3) 김영주, 「곤륜 최창대의 수사론 연구」, 『동방한문학』 24집, 동방한문학회, 2003, 115-139면.

4) 성범중, 「곤륜(昆侖) 최창대(崔昌大)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4집, 한국한시학회, 2010, 5-40면.

5) 경서율, 「昆侖 崔昌大의 紀行詩 硏究」,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9, 60-88면.

6) 이황진, 「곤륜 최창대의 누정시 연구」, 『한국고전연구』 4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37-70면.

7) 권진옥, 「곤륜(昆侖) 최창대(崔昌大)의 문장론 연구」, 『동양고전연구』 73집, 동양고전학회, 2018, 7-34면.

www.kci.go.kr

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한시를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곤륜의 시를 주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시로 규정하였다.[8] 물론 곤륜의 한시를 내용적인 면에서 네 가지 범주에서 분류할 수는 있으나, 그의 시를 '평범하고 일상적인 시'로 포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곤륜의 시에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범주에서 논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 이황진의 연구는 곤륜의 누정시에 주목하여 곤륜에게 누정이 갖는 의미와 악부시(樂府詩)로 창작된 누정시에 관해 논하였다. 다음으로 경서율의 연구는 곤륜의 기행시에 주목하여 '호남(湖南)', '금강산(金剛山)', '북관(北關)'을 기행하고 창작한 시의 특징에 대해 논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곤륜이 '북관'에서 창작한 한시에 대해 논하였으나, 기행시의 범주에 국한하여 고찰하였기에 '북관'에서 창작한 한시에 다양한 면모를 다루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곤륜이 북평사 부임 시절에 창작한 작품만을 대상으로 이전에 논의되지 않은 작품들 중에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선별하여 곤륜의 한시가 어떤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는지, 또 그러한 작품에 어떤 특징적인 면이 있는지에 대해 논해보려 한다.

'북관'이라는 공간은 곤륜에게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공간이기에 시에 등장하는 소재부터 평범함과는 거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창작한 한시에는 곤륜의 실험적인 창작정신을 엿볼 수 있는 시들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곤륜이 다양한 한시를 창작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규명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창작된 작품들을 고찰한다면 평범함과 일상성을 넘어서는 곤륜의 시세계가 지닌 다양한 면모를 논의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북관'을 배경으로 창작한 곤륜의 한시가 곤륜의 전체 시작(詩作)에서 지니는 의미를 밝힐 수 있으리라 본다.

8) 성범중은 곤륜의 시를 대상으로 돈독한 교유와 우정의 확인, 여행 경험과 산하미의 발견, 관료 경험과 애민정신의 재현, 한거와 자유로운 삶의 추구 등 네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www.kci.go.kr

2. 새로운 창작 공간 - '북관(北關)'

'북관'은 조선시대 문인들에게 일상적인 공간을 넘어 새로운 창작 공간으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북관'의 경관, 풍물, 생활상, 여정 등은 관리들이나 유람객들에게 다양한 흥밋거리로 다가왔으며 그들의 관심은 한시를 통해 다양한 양상으로 형상화되었다. 그렇다면 '북관'은 어디를 말하는가? 홍의영(洪儀泳, 1750~1815)의 『북관기사(北關紀事)』를 참고하면 '북관'은 마천령(摩天嶺)을 기준으로 함경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그 북쪽을 지칭하며, 함경남도에 해당하는 '남관'에 비해서 풍토나 풍속이 매우 다르다고 기술하고 있다. 함경도 지역은 태조(太祖)와 그 시조의 근거지로 조선 왕실의 발상지로 일컬어졌다. 그러나 이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할 뿐, 함경도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늦은 시기에 조선의 강역으로 편입되었으며, 토지가 척박하고 재해가 잦아 백성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일컬어지곤 하였다.

조선의 문인들은 연행을 비롯한 해외여행은 물론, 금강산이나 백두산 등 명산유람이나 지방관 부임 및 유배 등 다른 환경에 접할 기회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겼다. 대상 지역이나 작자에 따라 표현하는 양상은 달랐으나 함경도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 더욱 낯선 곳이었는데, 이는 『와유록(臥遊錄)』에 실려 있는 지역별 작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고려 시대부터 17세기 중반까지의 산수 유람에 대한 시문을 모은 『와유록』에 실려 있는 작품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서울·경기 25편, 강원도 101편, 충청도 13편, 전라도 13편, 제주도 4편, 경상도 42편, 황해도 5편, 평안도 21편, 함경도 4편, 기타 지역이 7편이다.[9] 이 단편적인 기록만 보더라도 함경도가 조선 문인들의 유람 대상에서는 거의 제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함경도가 문학 공간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18세기 남인 인물인 이중환(李重煥, 1690~1756)의 『택리지(擇里志)』에서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택리지에 소개된 함경도를 보자.

---

9) 『臥遊錄』(영인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www.kci.go.kr

함흥 이북은 산천이 험악하고 풍속이 사나우며 기후가 춥고 토지도 메말라 곡식은 조[粟]와 보리뿐이며, 벼는 적고 면화도 없다. 지방 사람들이 개가죽을 입고 추위를 막으며 굶주림을 견디는 것이 여진족과 똑같다. 산에는 잘[貂皮]과 인삼이 많이 난다. 백성은 잘과 인삼을 남쪽 장사꾼의 무명과 바꿔 바지를 입지만, 이것도 살림이 넉넉한 자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바다에는 생선과 소금이 많이 난다. 그러나 바닷물이 맑고 사나우며, 바다 밑에는 바위가 많아 생선과 소금 맛이 서해 것보다 못하다.10)

태조가 무장(武將)으로 있다 왕씨(王氏)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으므로, 그를 도운 공신들 가운데 서북 출신의 맹장이 많았다. 그런데 나라를 세운 뒤에는 "서북 지방 사람은 높은 벼슬에 임용하지 말라"는 명을 내렸다. 그래서 평안·함경 두 도에는 300년 이래로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없다. …(중략)… 또 나라 습속이 문벌을 중하게 여겨 서울 사대부는 서북 지방 사람과 혼인을 하거나 벗으로 사귀지 않았다. 서북 사람 또한 감히 서울 사대부와 더불어 동등하게 여기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서북 양도에는 드디어 사대부가 없게 되었고, 서울 사대부들도 그곳에 가서 사는 자가 없게 되었다.11)

첫 번째 인용문에서는 '북관'의 지형과 풍속, 기후, 물산과 생활환경에 대해 말하고 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함흥 이북은 '북관' 중에서도 극변 지역으로, 주로 유배지로 많이 알려진 곳이다. 험악한 산천, 사나운 풍속, 추운 기후, 부족한 식량 등 모든 생활 여건 면에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척박하고 열악한 곳이다.12) 남인(南人) 학자인 이중환 개인의 입장에서 '북관'

10) 李重煥, 『擇里志』(朝鮮光文會), 八道總論, 「咸鏡道」. "咸興以北, 山川巃嵸, 風俗勁悍, 土寒地瘠, 穀惟粟麥, 少杭稻無綿緊. 土人衣狗皮禦冬, 耐飢寒一如女眞矣. 山饒貂蔘, 民以貂蔘換南商之綿布, 方得衣袴, 然非富原者不能也. 臨海饒魚鹽, 然海水淸而悍, 下多巖石, 魚鹽味俱, 不及西海之醲厚." 번역은 안대회, 『완역 정본 택리지』, 휴머니스트, 2018, 82면을 참고하였다.

11) 李重煥, 앞의 책. "太祖以將帥, 受王氏禪代, 其佐命功臣, 又多西北猛將. 旣得國, 遺命西北人勿大用, 以故平安咸鏡兩道, 三百年來無顯官. ……(중략)…… 且國俗重門閥, 京城士大夫, 不與西北人爲婚娶平交, 西北人亦不敢與士大夫抗禮, 而西北兩道, 遂無士大夫, 士大夫亦無往居者." 번역은 안대회, 위의 책, 86면을 참고하였다.

www.kci.go.kr

의 자연 지리적 환경과 생활상을 기록한 것이지만 『택리지』의 저술 성격으로 볼 때 이는 이중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 시기 사대부가 '북관'에 대해 지니고 있던 일반적 상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래 인용문에서 서울 사대부들이 서북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이 지역 출신 인물들 중에 조선을 개국하는데 큰 무훈(武勳)을 세운 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질이 사납고 '무(武)'를 숭상하는 '북관'의 풍습으로 인해 조선 개국 후에는 거의 조정에서는 제외 대상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면 조선후기 서울 사대부들은 '북관' 지역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불모지로 인식했으며, 서북지역 사람들과는 거의 교유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북관'은 지역적으로는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 지나지 않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사대부들의 인식에서 배제되었던 곳이었다. '북관'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대부들의 인식에서 배제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학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문인들의 관심의 대상이자, 새로운 창작공간이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낯설고 새로운 광경과 처음 목도한 '북관' 백성의 풍속과 생활상은 조선후기 문인들에게 한시의 소재가 되기에 손색이 없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작된 '북관' 관련 한시는 조선후기의 한시가 한층 더 풍부하고 다양한 면모를 지니는 데 기여하였다.

조선후기 시인이었던 곤륜에게도 '북관'은 그의 한시 창작을 자극하는 충분히 매력적인 공간이었다. 곤륜은 1700년(숙종26) 32세의 나이로 북평사에 임명되어 되어 비로소 '북관'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북평사로 부임한 곤륜은 함경도 육진(六鎭)까지 유람을 하였다. 곤륜에게 북관행(北關行)은 부임길이자 유람길이었으며, 노정에서 눈으로 목도한 낯설고 기이한 변새의 풍정과 그에 대한 관심을 한시로 담아내었다. 물론 곤륜은 '북관'을 유람하기 이전에도 계구(季舅) 이인엽(李寅燁)과 함께 금강산을 유람하였으며, 이하곤(李夏坤) 등과 송도(松都)를 유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정기(北征記)」의 "북행

12) 이중환은 이 글의 말미에서 "이런 까닭에 서북 방면의 함경·평안 두 도는 살 만한 곳이 못된다.[是故西北咸平二道不可居]"고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www.kci.go.kr

이관(北行異觀)"[13]이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북관'의 여정이 그에게 주었던 설렘과 기대는 이전의 유람과는 차원이 달랐다.

곤륜은 무엇보다 먼저 '북관'으로의 여정 길에 자신이 목도한 낯선 지형과 그 감회를 시로 형상화하였고, 이어 자신의 부임지에서 보고 들은 변새의 풍정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북정기」를 참고하면 곤륜의 행로와 그가 경유했던 곳은 다음과 같다.

회양(淮陽) : (모판(牟坂)) ㅡ (안심사(安心寺)) ㅡ (은계역(銀溪驛)) → **철령(鐵嶺)** → **안변(安邊)** : (석왕사(釋王寺)) ㅡ (학포(鶴浦)) ㅡ (사봉(沙峯)) → **영흥(永興)** : (준원전(濬源殿)) → **함흥(咸興)** : (성천강(城川江)) ㅡ (낙민루(樂民樓)) ㅡ (본궁(本宮)) → **북청(北靑)** : (칠사헌(七思軒))ㅡ(노덕서원(老德書院)) → **단천(端川)** : (마운령(磨雲嶺)) ㅡ (마천령(磨天嶺)) → **성진(城津)** → **명천(明川)** : (칠보산(七寶山)) ㅡ (금장사(金藏寺)) ㅡ (귀문관(鬼門關)) → **경성(鏡城)** : (어랑사(漁郞社)) → **회령(會寧)** : (무산령(茂山嶺)) → **온성(穩城)** → **훈융(訓戎)** → **경원(慶源)** → **후춘(厚春)**

3. 북관(北關) 풍정(風情)의 시적 형상화와 그 특징

3.1. 낯선 변새 풍광의 포착과 생경한 경험의 표출

'북관'은 우리나라에서 최북단에 위치한 곳이기도 하지만 북에서 남으로 길게 뻗은 백두대간의 발원지로서, 지형적으로도 다른 지역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세종 때는 압록강·두만강 연변 지역에 대한 옛 영토 회복을 위해 여진 정벌과 더불어 6진이 설치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곤륜이 부임지까지의

13) 崔昌大, 『昆侖集』 卷6, 「北征記」. "北行異觀, 自淮陽始 ……." 「北征記」는 곤륜이 북관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거쳐 간 곳과 명승지를 병든 누이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글이다.

www.kci.go.kr

노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된 것은 바로 외관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북관'의 지형과 자연환경이었다. 경물의 변화를 허투루 넘기지 않는 시인들이 이를 눈으로만 보고 지나칠 리가 없었다. 곤륜이 마천령을 넘으며 읊은 지은 시를 보자.

마천령(磨天嶺)

봉우리 두른 바윗길 끊어지니	峰回巖徑斷
붉은 해가 허공에 거꾸로 드리웠네	赤日倒垂空
산이 점점 높아지는 줄은 모르고	不省山漸高
그저 먼지 없는 바람을 괴상히 여겼네	但怪無埃風
올라도 하늘은 오히려 멀기만 하니	仰攀天尙遠
하늘이 끝이 없음을 비로소 알겠네	始覺天無窮
푸른 파도는 푸른 하늘과 한 빛깔이니	滄濤混空碧
만고에 어두운 빛 감도는 곳	萬古一冥濛
연이은 봉우리엔 서리와 이슬이 쌓여있고	連峰積霜露
가을 경치에 오랑캐 기운 가득하네	秋色滿山戎
내려다보니 원근이 헷갈리고	前臨迷近遠
돌아보니 동서 분간이 어렵네	却顧眩西東
그 옛날 현명하고 뛰어난 분들도	古昔賢俊人
죽을 때까지 갈림길에 놓였지	終身歧路中
아, 멀리 유람 떠나는 이 마음	嗟我遠遊心
감히 몸이 피로한 것을 꺼리랴	敢憚勞其躬
공과 사는 고작 한 칸 차이니	公私只一間
분주한 것은 남들도 마찬가지	奔走物所同
岳老(이안눌)의 시에 마음이 가니	殷勤岳老歌
맞이하고 보내는 일 언제 끝나려나	迎送何時終
시내길 여러 차례 반복되더니	川蹊屢徑復
그윽한 바위 숲과 통하네	石林窈窕通
늪에는 큰 교룡이 숨어있고	有湫藏長蛟

www.kci.go.kr

나무에는 검은 곰 매달려 있네　　有樹挂玄熊
나는 이놈들 죽이고 싶으니　　我欲殺此物
좋은 활이 없는 것이 안타깝구나　　惜哉無良弓[14]

위의 시는 마천령을 넘으며 읊은 5언 26구의 고시(古詩)이다. 마천령은 함경남도 단천시와 함경북도 성진시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고개가 높아 구름과 맞닿은 것 같아서 마천령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서울 사대부로 생전 처음 마천령을 눈앞에 마주한 곤륜은 변새의 높고 기이한 경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렇지만 "올라도 하늘은 오히려 멀기만 하니, 하늘이 끝이 없음을 비로소 알겠네.〔仰攀天尙遠, 始覺天無窮.〕"라는 표현에서 제 아무리 높은 마천령도 하늘 앞에서는 작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시의 전반부에서는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깎아지른 마천령의 경관과 음산한 변새의 정경을 그려내고 있으며, 중반부에는 북평사로 부임하기 위해 먼 여정 길에 오른 자신의 소회를 말하였다. 후반부에는 다시 구불구불 이어지는 마천령의 지형과 교룡과 곰이 깃들어 사는 변새의 낯선 자연환경을 그리고 있다. 위의 작품처럼 곤륜은 자신이 목도한 변새의 풍정과 생경한 경험을 표출하기 위해 드물지 않게 고시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다. 율시는 고시에 비해 형식상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고시에 비해 작가가 새로운 풍광과 그 곳에서 느끼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곤륜이 북관을 배경으로 고시를 드물지 않게 활용한 것은 변새에 대한 자신의 호기심과 느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그의 창작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낯선 지형과 자신의 소회를 5언 고시로 읊은 작품으로는 「마운령(磨雲嶺)」, 「귀문관(鬼門關)」, 「두만강(豆滿江)」 등이 눈이 띈다. 다음으로는 함관령을 오르며 지은 작품을 보자.

14) 崔昌大, 『昆侖集』 卷3, 「磨天嶺」. 말미에 "東岳守端川, 作迎賓送賓歌詞."라는 원주(原註)가 있다.

www.kci.go.kr

함관령에 올라[登咸關嶺]

겹겹 봉우리 하늘 높이 솟아	天仄嶺盤空
굽이굽이 길 하나로 통하네	縈廻一路通
바위 숲에는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石林斜度日
어둑한 골짜기에는 세찬 바람 부네	陰洞曲含風
높은 고개 지나니 가슴 찢어지고	歷井心方破
별을 바라보느라 눈을 끝까지 떼지 않네	瞻辰目已窮
왕준은 신하의 절개 가벼이 여겨	王尊薄臣節
말을 재촉하여 감히 충신이라 말했네	叱馭敢言忠[15]

함관령은 함경도 함주(咸州)와 홍원(洪原)사이에 있는 높은 고개이다. 마천령을 지나면서 그랬던 것처럼 곤륜은 가장 먼저 하늘 높이 솟은 함관령의 험준한 지형을 언급하고 있다. 이어 함련에서는 황혼 무렵의 바위 숲과 세찬 바람이 부는 골짜기의 정경을 그리고 있다. 석림(石林)과 음동(陰洞)은 변새 고개의 어두운 분위기를 압축적으로 담아낸 시어(詩語)이다. 경련에서는 임금의 명을 받고 변방 부임길에 올라 임금과 도성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소회를 읊었다. 점점 변새에 가까워지자 도성과 멀어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고, 임금에 대한 그리움에 별이 뜬 곳의 대궐 쪽을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한다. 미련에서는 한(漢)나라 때 험준한 구절판(九折阪)을 넘으면서 마부를 꾸짖어 “왕양(王陽)은 효자라서 자기 몸을 아꼈지만, 나는 충신이니 말을 빨리 몰아라.”라고 말했던 왕준(王尊)의 고사를 인용하여 신하된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 작품은 앞의 고시와 달리 근체시의 전형적인 선경후정(先景後情)의 구조를 활용하여 변새의 풍정과 자신의 소회를 집약적으로 표현하였다. 곤륜은 ‘북관’의 험준한 지형 뿐 아니라, 자신이 목도한 변방 고을의 실제 모습과 지역민의 생활상을 시에 담아내기도 하였다.

15) 崔昌大, 『昆侖集』 卷3, 「登咸關嶺」.

www.kci.go.kr

육진가(六鎭歌) 5수

옛날 수자리에는 북풍 불고 서리 내려　古戍北風天雨霜
봉화 연기 사라지고 달빛 창창하네　烽煙滅盡月蒼蒼
오랑캐 아이 아직도 신 병사 이야기하며　胡兒尙說申兵使
가까이 있는 동쪽 성의 옛 전장을 두려워하네　畏近東城舊戰場[16]

육진가(六鎭歌) 6수

누런 느릅나무 서리 내려 잎사귀 막 떨어지니　黃楡霜落葉初飛
변방 나그네 다 헤어진 옷으로 가을을 나네　戍客經秋盡敝衣
강 건너 멀리에서 오랑캐 말발굽 소리 들리자　隔水遠聞胡騎語
인삼 캐다가 이제 막 후춘에서 돌아오네　採參新自厚春歸[17]

위의 시는 「육진가(六鎭歌)」 라는 작품으로, 인용한 시는 '육진' 가운데 '온성(穩城)'과 '훈융(訓戎)'에 대해 읊은 것이다. '육진'은 조선 세종 때 동북 방면의 여진족에 대비해 두만강 하류 남안에 설치한 국방상의 요충지로, 우리나라의 지형으로 볼 때 거의 최북단에 위치한 곳이다. 첫 번째 시는 곤륜이 목도한 '온성'의 광경이다. 곤륜의 눈에 들어온 온성의 정경은 세찬 북풍이 몰아치고 서리가 내리는 수자리와 전쟁이 그쳐 봉화가 오르지 않고 달빛이 비치는 스산한 변방의 모습이다. 그에 더하여 오랑캐 아이의 입을 빌려 '온성'에서 있었던 이탕개(尼湯介)의 난을 말하고 있다. 시에서 말하는 신 병사(申兵使)는 이탕개의 난을 평정했던 온성 부사(穩城府使) 신립(申砬, 1546~1592)을 가리킨다.

두 번째 시는 곤륜이 목도한 '훈융'의 정경이다. 첫 구에 등장하는 누런 느릅나무는 북방의 변경 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이다. 서리가 내려 느릅나무의 잎사귀가 떨어지고, 다 해진 옷으로 변방에서 가을을 보내는 나그네의 모습

16) 崔昌大, 『昆侖集』 卷3, 「六鎭歌」 其五.
17) 崔昌大, 『昆侖集』 卷3, 「六鎭歌」 其六.

www.kci.go.kr

을 그리고 있다. 셋째 구에서는 '훈융'이 오랑캐와 지척 거리임을 알 수 있으며, 넷째 구에서는 인삼을 캐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오랑캐 땅을 넘나드는 이 지역 백성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육진가」의 다른 작품에서도 곤륜은 변새에서 자신이 직접 목도하고 체험한 정경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곤륜은 변방 고을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도 관심을 지니고 이를 시에 담아내었다. 회령(會寧)에서 읊은 다음 작품을 살펴보자.

회령 도중에서[會寧道中]

황제의 고향과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	落落帝鄕遠
가도 가도 변방은 멀기만 하네	行行關塞遙
서리와 바람은 지는 해를 재촉하고	霜風催急景
고각 소리는 차디찬 밤을 울리네	鼓角動寒宵
옛 진영에는 여전히 병란의 기운 있고	古鎭猶兵氣
맑은 변방에는 절반이 오랑캐 노래	淸邊半虜謠
나는 늦게 태어난 것 한스럽지 않으니	吾生不恨晩
금나라와 요나라 시절 겪지 않아서라네	得免際金遼[18]

'회령'은 함경도 북부 지방의 행정과 군사상의 요충지로, '육진'의 개척 과정에 설치되어 두만강을 사이에 둔 동북지역 국경선을 확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곳이다. '회령'과 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진 사실은 '북송(北宋)'의 '휘종(徽宗)'과 '흠종(欽宗)'의 무덤이 이 곳 '오국성(五國城)'이라는 곳에 있다는 설이다. 위의 시를 볼 때 곤륜도 이 설에 대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련에서는 '휘종'과 '흠종'이 금나라 군사에게 사로잡혀 '오국성'으로 끌려왔던 사실로 시상(詩想)을 열어 회령이 지리적으로 변방 끝에 위치한 고을임을 부각시키고, 함련에서는 변새를 상징하는 '상풍(霜風)'과 '고각(鼓角)'의 이

18) 崔昌大, 『昆侖集』, 卷3 「會寧道中」. 말미에 "地有五國城, 宋帝所幽死云."라는 원주가 있다.

www.kci.go.kr

미지가 저물녘과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황량하고 쓸쓸한 회령의 분위기가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련에서도 여전히 병란의 기운이 감돌고 오랑캐 노래가 들리는 회령의 풍정을 말하였다. 미련에서는 자신이 이전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금나라와 요나라 오랑캐의 침입을 받았을 터인데, 뒤늦게 태어나 전란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난 것을 다행이라 여기고 있다. 이는 송나라와 고려가 금나라와 요나라 오랑캐에게 겪었던 치욕의 역사가 곤륜의 의식 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3.2. 지역색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사실적 묘사

'북관'을 유람했던 시인들은 그 곳의 풍속과 인정세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모습을 때로는 있는 그대로, 때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때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담아내었다. 앞서 『택리지』의 내용에서 보았듯이 조선 중기 이래 지식인 및 정치인들의 머릿속에는 함경도와 평안도는 사족(士族)이 없고 무사(武士)들만 존재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었다. 지식인 및 정치인들이 이 지역에 사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는 점은 곧 이 지역 사람들을 문명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들에게 '북관' 사람들은 그저 무예만 일삼고 기질만 억센 오랑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곤륜은 '북관' 사람들의 강건한 기질과 무예를 숭상하는 그들의 성향을 독특한 지역색으로 받아들여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전대(前代)에 이 지역에서 무공(武功)을 떨쳤던 김종서(金宗瑞)와 정문부(鄭文孚) 같은 걸출한 인물들을 흠모하여 이러한 인물들이 지금에는 없음을 탄식하였으며, 북방 사람들의 풍속이 질박하지만 대부분 강건하고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숙한 점을 들어 '북방의 강함[北方之强]' 이라고[19] 인식하였다. 곤륜이 '북관'을 다녀

19) 崔昌大, 『昆侖集』 卷6, 「北征記」. "每念金宗瑞拓地之功, 鄭文孚倡義之蹟, 欽讚國朝才畯之盛, 俯仰時艱, 實有難作之歎. 若鬥鬩侵掠之迹, 往往而有, 不可數. 歷覽興慨, 撫古悲吟, 誦陶翰之詩, 諷李華之文, 不覺神動而氣激也. 其俗朴鄙, 好武善喪而少苛禮, 其人多長大驍健, 習弓馬喜馳獵, 蓋北方之强然也."

www.kci.go.kr

온 뒤 임진란 때에 '북관'에서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운 이붕수(李鵬壽), 정문부(鄭文孚), 오응태(吳應台) 등의 공적을 기린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를 지은 일도 북방과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경성관대조(鏡城觀大操)」는 곤륜이 북평사로 부임하여 '경성'에서 군사 훈련을 지켜보고 지은 작품으로, 북방에 대한 곤륜의 새로운 인식을 가장 잘 담아낸 작품이다. 군사 훈련에 대한 사실적인 모습과 현장에서 느꼈던 생동감을 장편 고시에 낱낱이 담아낸 점이 특징적이다.

경성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보고[鏡城觀大操]

1

「노서」에서는 병기를 잘 수선하라고 경계하였으니	魯誓干戈戒善敝
옛날부터 전쟁은 종사(宗社)와 관련된 일이지	古來戎事係宗祧
지방에서 열병하던 일은 원래 주나라 제도에 있었고	蒐兵方岳元周典
변방에 활쏘기를 가르친 일은 한나라 때부터라네	敎射邊城自漢朝
위엄 있는 세종 임금 시절 전투로 정벌하였으니	英廟威靈曾戰伐
두만강의 강토는 모두 부세를 걷는 지역이라네	豆江封域悉征徭
경성 고을은 가장 중요한 요충지이니	鏡城爲邑要衝甚
절도사의 병영이 있어 먼 지역까지 관할하네	節度開營控制遙
한 지역의 도회지가 굳게 방비되고	都會一方仍鎖鑰
6군의 양갓집 자제들 모두 뛰어난 인물이지	良家六郡盡雄驍
용력은 맨손으로 외뿔소를 사로잡을 수 있고	力能徒手擒靑兕
화살을 쏘면 가을 구름사이 독수리를 맞힐 수 있네	射則秋雲命皁雕
백두산은 높이 솟아 원기가 엄숙하고	太白出高元氣肅
맑은 서리는 몰아쳐 온 산이 싸늘하네	淸霜飛盡萬山凋

2

군사 훈련은 본래 농한기에 이루어지니	講戎固取田農隙
대열 편성은 모두 원수부에서 지휘하네	編伍皆從帥府調

www.kci.go.kr

이른 새벽 군영에는 푸른 장막 벌여있고　陣道淸晨張翠幕
장군은 아침에 금 재갈 물린 말로 사열하네　將軍朝日振金鑣
깃발 그림자 푸른 하늘에 어지러이 휘날리고　旌旗影亂天空碧
군악 소리 멈추면 대낮에는 고요하네　笳鼓聲停晝寂寥
두려움에 복종하는 3군이 호령소리 들으니　讋伏三軍聽號令
정녕 한 쪽으로 정탐하는 병사를 보내네　丁寧一面送探哨
여러 군영에서는 메아리처럼 군가로 답하고　諸營響答鐃歌唱
장교들은 신속히 지휘하는 부채로 부르네　列校風馳羽扇招
십리에는 창을 잡은 군사들 일제히 늘어서고　十里鋒鋋排簇簇
천 필의 준마가 울부짖으며 에워쌓고 있네　千蹄驥騄擁蕭蕭
총소리가 땅을 울리니 삼산이 진동하고　金丸殷地三山動
불화살을 공중에 쏘니 사방이 불타는 듯　火箭攢空六合燒
신속히 대열을 나누어 금세 벽루에 오르고　颯颯分行纔壁壘
어지러이 길을 빼앗느라 갑자기 떠들썩하네　紛紛奪路忽喧囂

3

지휘는 호랑이와 용이 바람과 구름을 만난 듯　指揮風虎雲龍合
전차의 무장한 말은 굉음 내며 뛰어오르네　轟轒戈車甲馬超
질주하면 저녁에는 제나라의 야영지까지 추격하고　疾走應追齊竈夕
몰래 행군하면 밤에 채성을 습격할 수 있을 듯　潛行欲襲蔡城宵
종횡무진 쇠창을 휘두르는 여포같고　橫馳呂布揸金槊
석교를 차지하고 읔박지르는 장비같네　叱咤張飛據石橋
귀신처럼 은미한 모습에 기이한 계책 숨겨져 있고　鬼物隱形奇策秘
이무기가 육지로 올라와 살기가 감도는 듯　龍蛇起陸殺機搖
맹렬한 기세는 항우가 아방궁을 불태우는 듯　烈如項炬焚秦殿
광기는 오자서의 혼령이 조수에서 용솟음치는 듯　狂似胥神湧浙潮
다급히 돌격할 때에는 벽력처럼 빠르고　衝陷急時爭霹靂
신속히 포위할 때에는 회오리가 휘감는 듯　合圍忙處捲風飆
천지가 깜깜해질 듯이 누런 먼지로 뒤덮이고　乾坤黯慘黃塵匝
해와 달빛이 어두워질 듯이 섬광이 치솟네　日月昏沉絳氣歊

www.kci.go.kr

기세는 파도 넘실대는 푸른 바다를 억누를 듯　勢壓滄溟翻渤滀
함성은 높이 솟은 장백산을 뽑아낼 듯　聲摧長白拔岧嶢

…중략(中略)…

4

국가의 안정과 난리는 일정한 때가 없으니　國家理亂無常勢
변덕스러운 하늘의 뜻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天意推遷孰預料
김종서 이후로는 훌륭한 장수가 드물어　宗瑞以來良將少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후로 오랑캐들 교만하네　丙丁之後狄人驕
옛날 평성에서의 일 한나라의 수치였으니　平城往事羞皇漢
간우 춤을 언제 삼묘 땅에서 추었던가　干羽何時格有苗
방비는 온전히 장수들에게 의지하니　固圉專憑諸將帥
궁수들이 누가 이처럼 민첩하고 날래랴　控弦誰似此輕趫
와신상담하는 조정의 절실한 근심 잘 아니　極知薪膽宸憂切
천하를 돌아봄에 오랑캐 기운으로 가득해서지　回望寰區虜祲祆
어찌하면 군대 이끌고 서쪽 변방으로 나아가서　安得揚兵出西塞
임금 위해 요동 땅 전부를 평정하고 돌아올까나　爲君回轡破全遼
서생의 북받치는 마음 아직도 검을 울려　書生慷慨猶鳴劍
머나먼 변방 유람에 또 해진 갖옷 걸치고 있네　絶塞羈遊又弊貂
한 무제에게 오랑줄 청했던 종군은 성과 없었으니　未效請纓干武帝
그저 붓을 싣고 표요교위를 따라가네　徒能載筆逐嫖姚
진림은 격문지어 헛되이 명성 더럽혔고　陳琳草檄虛名忝
왕찬은 종군시(從軍詩) 지어 실컷 즐거워하였네　王粲從軍樂事饒

5

가는 곳마다 군대보고 마음과 눈 장쾌해지고　隨處戎行壯心目
도성 대궐의 아득한 안개 도리어 생각나네　却懷京闕杳煙霄
하늘 끝에서 부모님 생각에 눈물에 젖고　天涯淚眼瞻雲遠
객 살이 근심스런 마음을 술로 씻어보네　客裏愁腸借酒澆

www.kci.go.kr

정로장군 제준은 투호하면서 한가한 때가 많았고　征虜投壺多暇豫
유량은 달밤에 휘하의 관리 초청 하였네　庾公明月或招邀
감격한 마음으로 임금 은혜에 보답하지도 못했는데　未將感激酬王造
다시 배회하다 막료의 자리로 옮겨왔네　聊復低徊備幕僚
선실에서는 응당 가의를 생각하였고　宣室會應思賈誼
황금대에서는 평생 연소왕을 보좌하기를 원했네　金臺終願佐燕昭
술이 취하여 참군의 오만함을 배우고자하니　醉來欲學參軍傲
술잔 앞으로 짧은 모자 날리도록 내버려두리라　一任樽前短帽飄[20]

이 시에 등장하는 함경도 '경성'은 바로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진영(陣營)인 북병영(北兵營)이 있던 지역으로, 조선시대 최전방의 군사 요충지이자 정예 병력이 주둔하던 곳이다. 곤륜이 맡은 북평사는 북병영에 속한 정6품의 문관(文官) 벼슬이다. 곤륜은 생전 처음 보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응시하며 한 장면 한 장면 놓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은 이 작품의 서두 부분이다. 먼저 『서경(書經)』의 말을 인용하여 전쟁은 하찮은 일이 아니라 한 나라의 종사(宗社)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라 여기고, 강무(講武)의 연원을 중국의 주나라와 한나라에서 찾았다. 이어 경성이 세종 임금 시절 정벌로 차지한 우리의 강토이고, 최전방의 군사 요충지임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또 무예와 용력이 출중한 인물들이 즐비한 경성을 중국 한나라 때 명장(名將)을 많이 배출했던 6군에 비유하였다.

[2]와 [3]에서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지켜본 군사 훈련 과정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원수부(元帥府)는 바로 병마절도사가 있는 북병영이다. 아침에 시행되는 북병영의 열병식부터 절도사의 지휘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장교들과 군졸들의 움직임, 대오를 맞춰 창을 들고 늘어선 군졸들의 엄숙한 모습, 금방이라도 박차고 나갈듯한 군마의 움직임이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인 듯 생동감 있다. [3]에서 역시 군사들의 훈련 모습을 묘사하였는

20) 崔昌大, 『昆侖集』 권3, 「鏡城觀大操」.

www.kci.go.kr

데, 군사들을 과거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에 비유한 점이 특징적이다. 현란한 창술을 구사하고 쩌렁쩌렁한 구령을 붙이는 군사들을 『삼국지(三國志)』에 등장하는 여포(呂布)와 장비(張飛)에 견주었고, 군사들의 맹렬한 기세와 전의에 불타 광기어린 모습을 향우(項羽)가 불태워 3개월 동안 활활 타올랐던 진시황(秦始皇)의 아방궁(阿房宮)과 오왕(吳王) 부차(夫差)에게 원한을 품은 채 가죽자루에 담겨 오강(吳江)에 버려졌던 오자서(伍子胥)의 광기에 비유하였다.

4에서는 김종서 이후로 훌륭한 장수가 없어 청나라 오랑캐들의 침입을 받아 치욕을 당한 현실을 한 고조(漢高祖)가 평성의 백등산(白登山)에서 흉노(匈奴)에게 포위되었던 치욕에 비유하고, 이와는 대비적으로 우왕(禹王)이 삼묘(三苗)를 정복하여 뜰에서 춤을 추었던 고사를 인용하였다. 곤륜은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눈치를 보아야하는 조선의 현실에 분개하여 자신이 일개 서생(書生)에 지나지 않지만 병력을 이끌고 요동을 평정하고 싶은 포부를 밝히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은 문관인 북평사이기에 한 무제(漢武帝) 때 표요교위(嫖姚校尉)로 흉노를 정벌했던 곽거병(霍去病)과 같은 병마절도사를 수행하거나 건안칠재자(建安七才子)로 위(魏)나라 조조(曹操)를 따라 전쟁터에서 종군시(從軍詩)를 지었던 왕찬(王粲)처럼 종군(從軍)하는 것이 직분에 걸 맞는 일임을 잘 알고 있다.

5에서는 도성을 떠나 북방에서 객으로 지내며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근심을 떨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읊었는데, 여기에서도 비유와 고사(故事)를 활용한 표현이 특징적이다. 제준(祭遵)은 후한(後漢) 때 장군이었지만 인재를 선발할 때 유학자를 선발하고 투호(投壺)를 즐겼던 인물이고, 유량(庾亮) 역시 장군이었지만 막하의 관리들과 시를 읊조리며 풍류를 만끽했던 인물이다. 또 한 문제(漢文帝)가 선실(宣室)에서 가의(賈誼)를 이야기를 듣다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다가갔던 고사와 연소왕(燕昭王)이 천금을 내어 황금대(黃金臺)를 짓고 인재를 초빙하였던 고사를 들어 임금과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였다. 마지막 구절 역시 근심을 잊고 술에 취하고 싶은 자신의 심경을 환온(桓溫)이 베푼 용산(龍山)의 주연(酒宴)에 참군의 신분으로 참석했다가 국화주

www.kci.go.kr

에 취한 나머지 바람에 모자가 날아가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던 진(晉)나라 맹가(孟嘉)에 비유하였다.

위의 작품은 먼저 곤륜이 남긴 작품 중 가장 장편의 고시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조선후기에 많은 시인들이 북방의 지역적 특색과 관련하여 장편시를 남겼지만 이처럼 북방의 군사 훈련을 소재로 장편시를 남긴 작가가 거의 없는 점으로 볼 때, 특색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을 통해 곤륜이 북방 사람들과 그들의 풍속을 오랑캐에 견주었던 일반 사대부들과 달리 '북관' 사람들의 강건한 기질과 무예를 숭상하는 그들의 성향을 독특한 지역색으로 받아들여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작품 속에 드러나는 군사 훈련에 대한 생생한 묘사와 고사(故事)를 인용한 비유적 표현이다. 작가의 서술과 감회가 중심이 되어 단조로울 수 있는 다른 장편시의 구성과 달리 현장에 와있는 듯한 생생한 묘사와 북방 및 군사와 관계된 고사(故事)를 적절히 구사하여 표현력을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작품은 곤륜의 장편고시 중에서도 가장 특색 있는 작품이며, 조선후기 북방을 소재로 한 장편 고시 중에서도 보기 드문 작품이다.

4. 결론

위에서는 곤륜 최창대가 북평사로 부임했던 시기에 일상적 공간이 아닌 '북관'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창작한 시를 중심으로, 그가 이 시기에 어떤 시를 지향하였는지, 또 그의 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곤륜이 북평사 시절에 창작한 시는 소재, 형식, 내용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시기의 시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우선 창작 공간의 변화로 말미암아 시에 등장하는 소재는 대부분 색다른 물색과 광경이었다. 곤륜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변새의 낯선 광경에 호기심

www.kci.go.kr

을 지니고, 직접 목도한 '북관'의 현장과 생경한 경험을 온전히 자신의 시에 담아내었다. 또 이전시기 작품과는 달리 형식면에서 고시(古詩)의 활용 빈도가 높은데, 이는 변새에 대한 자신의 호기심과 감회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형식적 제약이 있는 율시보다는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고시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이다. 그 중 가장 주목을 끄는 작품은 '북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생동감 있는 현장 묘사를 엿볼 수 있는 「경성관대조」이다. 서울 사대부들은 '북관' 사람들을 그저 무예만 일삼고 기질만 억센 오랑캐로 인식하였지만, 곤륜은 강건한 기질과 무예를 숭상하는 그들의 성향을 독특한 지역색으로 받아들여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경성관대조」는 바로 '북관'과 '북관' 백성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들의 지역색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곤륜의 남다른 북방 인식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경성관대조」는 북평사로 부임하여 '경성'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목도하고 이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장편고시인데, 생동감 있는 묘사와 함께 고사를 인용한 비유적 표현이 특징적이다. '북관'을 소재로 한시를 창작한 조선후기 어느 작가도 북방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시에 담아낸 전례가 없으며, 더구나 장편 고시로 창작한 더더욱 드문 만큼 「경성관대조」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북평사 시절에 창작했던 곤륜의 한시가 곤륜 시세계의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이 시기에 창작한 곤륜의 한시를 통해 그가 한시 창작에 있어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추구했던 개성적인 작가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www.kci.go.kr

참 고 문 헌

1. 자료

崔昌大,『(영인표점) 昆侖集』, 한국문집총간 183, 민족문화추진회, 1998.

李德壽,『(영인표점) 西堂私載』, 한국문집총간 186, 민족문화추진회, 1997.

『朝鮮王朝實錄』, 한국고전번역원제공, <http://db.itkc.or.kr/>.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http://sjw.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http://db.itkc.or.kr/>.

안대회 · 이승용 역,『완역 정본 택리지』, 휴머니스트, 2018, 82-86면.

『臥遊錄』(영인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2. 논저

권진옥,「곤륜(昆侖) 최창대(崔昌大)의 문장론 연구」,『동양고전연구』73집, 동양고전학회, 2018, 7-34면.

경서율,「昆侖 崔昌大의 紀行詩 硏究」,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9, 60-88면.

김영주,「곤륜 최창대의 수사론 연구」,『동방한문학』24집, 동방한문학회, 2003, 115-139면.

성범중,「곤륜(昆侖) 최창대(崔昌大)의 삶과 시세계」,『한국한시작가연구』14집, 한국한시학회, 2010, 5-40면.

이황진,「곤륜 최창대의 누정시 연구」,『한국고전연구』4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37-70면.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the Life and Poetic World of Gon-Leyun(昆侖) Choi Chang-dae(崔昌大)

- Focusing on the chinese poetry that shaped Bukgwan(北關) -

Lee, Seung-yong

This paper is a study of Chinese poems created while traveling to Bukgwan(北關) when Gon-Leyun(昆侖) Choi Chang-dae(崔昌大) served as Bukpyongsa(北評事). Gon-Leyun(昆侖) was recognized for his poems and sentences of the time. Even Nong-Am(農巖) Kim Chang-hyup(金昌協), who had a different political orientation at the time, spoke in praise of: It is difficult for Chinese poetry to realize the profound reason, but only Mr.Choi(崔) realized the point. While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Gon-Leyun(昆侖)'s entire literature has been studied, there is still much to be studied regarding Gon-Leyun(昆侖)'s Chinese poetry. This study attentioned to Bukgwan(北關), a new creative space that inspired Gon-Leyun(昆侖)′ to go beyond ordinary daily space and to look at things and curiosity, and looked at Chinese poems that were created during the time when Gon-Leyun(昆侖) served as Bukpyongsa(北評事). When looking at his life, it was also a time when he had given full play to his literary power.

First, the study looked at Bukgwan(北關), which had become a new creative space for Gon-Leyun(昆侖), and briefly looked at the different regions that Gon-Leyun(昆侖) was assigned Bukpyongsa(北評事). And then in Poetic World, Under the titles 'capture of unfamiliar frontier and express of unfamiliar experiences' and 'changes in perception of regional colors and realistic description', looked at how Gon-Leyun(昆侖) embodies

www.kci.go.kr

the landscape that he saw in the frontier, and what is the characteristic aspect that is manifested in the poetry he created at this time.

Many of the works during this period were based on images of unfamiliar terrain and their emotions. The forms are using Old Style Poetry(古詩) along with five or seven character-Regulated Verses. This was Gon-Leyun(昆侖)'s creative intention to actively express his curiosity and feeling about the border areas. In addition, a new perception of Bukgwan(北關) shows a realistic depiction of the scenery he saw, and「gyeong-seong-gwan-dae-jo(鏡城觀大操)」is one of the representative works.「gyeong-seong-gwan-dae-jo(鏡城觀大操)」is Long Old Style Poetry(古詩), When he was appointed as Bukpyongsa(北評事), he saw a large-scale military exercise in gyeong-seong(鏡城), and drew it realistically, featuring vivid descriptions and metaphors. In the late Joseon Period, none of the writers created large-scale military drills in the frontier, and, moreover, none of them used Long Old Style Poetry(古詩). The works that were created when he served as Bukpyongsa(北評事) cannot represent his entire Poetic World. However, his work created during this time clearly showed that he was an individual writer who sought new attempts and changes.

Key Words : Gon-Leyun(昆侖), Choi Chang-dae(崔昌大), Soron(少論), Bukgwan(北關), Chinese poems(漢詩).

이 논문은 2020년 06월 22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07월 0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20년 07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www.kci.go.kr